

칼럼

정기연

전 영암신복 초등학교 교장



은행과 은행 나뭇잎을 이용하자

올해 가을 대풍은 유실수의 열매가 떨어지게 하는 피해를 주었는데 은행은 피해가 없이 잘 익어 요즈음 떨어지고 있다.

떨어져 있는 은행에 관심을 두고 주위 모아 우리 생활에 요긴하게 이용해야 한다.

가로수로 심어 떨어진 은행을 주어진 가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문제시하는 데 은행의 진가를 모르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다.

은행이 우리 몸에 좋은 식품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안다면 다투어 주어야 할 것이며 은행 껍질은 모아서 유기농약으로 쓴다면 버릴 것이 없다.

잘못된 인식이 은행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가로수로 심어진 은행은 공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은행은 공해를 흡수하고 소화해 버리는 장수 식물이다.

그러한 식물인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심겨 있다고 은행이 공해가 있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은행은 여러 겹의 껍질 속에 들어있으므로 은행 알맹이는 공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약으로 쓰이는 은행잎은 가로수가 아닌 곳에 심어진 은행나무에서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마다 독일 제약회사에서는 한국산 은행잎을 수입해 간다.

은행나무 단풍잎은 혈액순환 약인 정코민의 원료이며 친환경 농약의 원료로 이용한다.

그러므로 나뭇잎으로 떨어지는 은행잎을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이용하는 데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은행 열매에는 간질, 펙틴, 히스티딘, 전분, 단백질, 지방, 당분 등이 많이 들어 있어 폐결핵 환자나 천식 환자가 오래 먹으면 기침이 없어지고 가래를 줄여주는 약리작용을 한다.

성육감퇴, 뇌빈혈, 신경쇠약, 전신 피로 등과 뇌혈관을 개선해주는 효능도 있다.

예전부터 은행은 혈액순환을 돕고 폐를 튼튼히 하며 설사를 멈추게 하는 데 사용해왔다.

가슴앓이나 가래, 전식에도 널리 이용됐다.

익힌 은행은 여성들의 대하증, 피부미용, 유선염, 유방염에 효과가 있으며, 남성은 조루증 치료와 강장제, 오줌싸개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먹기에 간편하며 프라이팬에 볶거나 불에 구워 먹어도 되며 기름을 짜거나 찌어서 복용해도 된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은행의 약효는 익힌 것과 날 것의 쓰임새가 다르다.

익힌 것은 오줌싸개(요실금)를 치료해 지노 효과가 있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식욕을 돋우며 날 것은 오줌이 자주 나오게 하는 빈뇨 효과가 있으며 열을 식히고 독소를 배출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은행나무는 중국 원산으로 현재 절강성(浙江省)에 약간 자생하고 있으며 한국·일본의 고산·고원지대를 제외한 온대에 분포한다.

높이는 5~10m나 40m에 달하는 것도 있다.

은행나무는 화재와 공해에 강하고 한번 심으면 1000년 이상 사는 유실수이며(용문사 은행나무는 1,100살) 산소 배출량이 다른 수종의 5~6배라 한다.

광주광역시 시목(市木)은 은행나무다.

도심을 중심으로 은행나무 가로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많이 심겨 있다.

은행나무는 공해와 병충해에 강하고 속성수로서 녹음조성이 잘되고, 가을이면 노란색 단풍으로써 한 몫하므로 광주시민이 사랑하는 시목으로 선정된 것이다.

은행나무 묘목은 은행나무 씨앗인 은행을 파종해서 묘목을 만드는 데 암수가 딴 그루로서 암그루에서만 은행이 연다.

따라서 은행 묘목은 최근에는 씨를 파종하여 돋은 어린 묘에 암그루 접수를 접목해서 만든 접목묘와 접목을 하지 않은 일반 묘가 있는데 일반 묘는 어려서는 암수 구별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은행나무 묘목 선택은 은행이 여는 암그루 접목 묘를 택해 심어야 할 것이다.

은행나무는 열매가 여는 수확성이 있는 유실수로서 손색이 없으며 우량종묘의 은행은 매실 만큼 큰 것도 있다 한다.

따라서 은행나무 가로수를 유실수로 이용하는데 착안해 일 석 2조의 효과를 노려야 할 것이다.

은행나무는 목질이 좋아서 가구를 만드는 데 쓰이므로 우량 목재 생산을 위해 산림녹화의 수종갱신을 은행나무로 했으면 한다.

새로 신설되는 도로의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심는다면 유실수로서 은행나무 가로수를 생각하면서 한적한 도로변에는 암그루를 많이 심고, 변화한 도로변에는 수그루를 많이 심는 배당을 해야 할 것이며, 이미 심어진 은행나무 가로수의 수그루를 암그루로 만들려면 고점에 의한 방법도 있다는데 전문적인 접목 기술이 따른다고 한다.

은행나무 가로수는 여름에는 녹음을 주어 좋으며 가을에는 단풍이 좋으며 은행 열매가 많이 열리면 유실수로서 소득도 올릴 수 있으니 소득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관심을 두고 은행나무 가꾸는 방법을 익혀서 은행나무를 잘 가꾸고 버려지는 은행과 은행잎을 잘 이용했으면 한다.

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안전모착용은 선택 아닌 필수
최근 농촌의 농로나 수로를 보면 대부분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눈이나 발을 하려 가면서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부주의로 수로 등으로 추락하여 머리부위를 다쳤을 때 누군가가 발견하지 못하고 장시간 방치하였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또 장날이나 먼소제지 등 일을 보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가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부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